

## ‘식품안전 처’ 7월 신설

식품안전관련기능 통합... 식약청은 폐지

정부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칭)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근정하고 조속한 당정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해 차관급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처 신설시 식약청을 폐지해 복지부로 흡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약청 “ ‘삼진아웃제’ 이르면 6월 도입”

위해식품 수입하다 3번 적발되면 시장서 퇴출

앞으로 위해식품을 수입하다가 식품위생법 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시장에서 아예 쫓겨난다.

식품 의약품 안정청은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4월께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유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식품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단계에서 위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별 규격검사에서 유해물질 무작위 검사를 2005년 2%에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함량미달 건강식품 넘친다

과열 경쟁으로 함량 미달 제품 다량 유통

과열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대한민국 건강제품 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글루코사민 제품, 의료용구 등의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업계 관행 자체가 히트상품 따라잡기에만 집중돼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욱 심각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총 검사대상 제품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글루코사민 100%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81%~84%로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측으로 들어온 소비자 상담건수가 2004년 6건에 비해 2005년 8월에 110건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지돼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의 글루코사민 함량이 8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사민 100% 함유', '글루코사민 100' 등 모호한 어구로 광고해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 22종 중 16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하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센나 혹은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식품들에서 검출된 센나,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 제약업체의 비타민 음료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자 이를 베낀 제품들이 다수 출시됐으며 그마저도 함량미달인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04년 11월 식약청에 의해 적발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질 불량제품을 제조한 3개소,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최고 97%에서 최저 20% 부족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글루코사민의 인기에 편승하여 함량미달 제품을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사진은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일이 함유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 판매한 14개소도 적발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또한 일명 '베끼기 열풍'에 의한 제품들이 다수 흡소핑을 장악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제품들의 특징이라면 일단 히트되는 상품이 생길 경우 곧바로 '아류 제품'을 대거 생산해 낸다는 점이다.

비타민 음료는 물론, 글루코사민, 알로에 최근 에 이르러서는 달맞이꽃종자유로 만든 감마리놀렌산 제품이 TV흡소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제공:서울프로폴리스)

# 프로폴리스 원산지표시 제도화 조치

농림부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3월5일 밝혔다. 국산 농산물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이 요령의 개정은 지난 2000년 11월이후 5년여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식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은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식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어난다. 2000년 11월 이후 5년 만에 개정 추가된 것은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 15개로 확대되어 의무적 표시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빠르면 이달 말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은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가공품은 포장지 재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빠르면 오는 3월말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원산지표기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식약청에 건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금년부터 원산지표시를 제도화 하게 되었다.

그간 생산농가들의 프로폴리스의 원과 생산량 저조와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가공업체에서는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수입산에 의존해 왔고, 국내 생산원가가 높아 가공업체에서는 국내산을 기피해 왔었다.

그러나 가공업체에서는 높은 국내가격과 수급양이 부족해 수입산이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 할 실정에서 업체에서는 울상이다.

## 신개발품 신아 프로폴리스 채집판

실용신안등록 제 342059 외 4건  
의장등록 제 36629 외 3건

신아프로폴리스 채집판 1호는 채집판 위에 보호판(뚜껑)이 있어 자동사양기, 화분떡, 10매, 12매, 계상1단, 상단에도 채집할 수 있고, 분리하여 5매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 채집판 1호는 채집판 위에 보호판(뚜껑)이 덮여 있어서 깨끗한 봉조를 생산할 수 있다.
- ♣ 채집판 2호는 10매, 12매도 사용하고 양쪽면을 잘라 9매용 계량 벌통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분리하면 5매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 채집판은 만곡형으로 되어 있어 냉동실에 냉동시킬 필요가 없다. 봉솔로 툭툭 털면 잘 떨어진다. 분리하면 채취하기가 더 편리하다.
- ♣ 채취방법은 채집된 채집판을 아침 8시전에 공박스위에 놓고 봉솔로 툭툭 털면 잘 떨어진다.

### ◆ 봉벌 노지 암실방법

- ♣ 신아자동사양기는 사양급수가 원활하여 봉벌을 일찍 사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 봉벌 노지 암실방법은 벌통방향이 남서쪽 즉 벌통 출입문이 10시~11시 30분에 해가 비치는 방향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찍 노지 암실 사육을 할 수 있다.

※ 프로폴리스는 노제마 부지병에 효과가 있다.

- 1호채집판 ₩6,000원
- 2호채집판 ₩4,500원
- 자동사양기 ₩5,000원
- 새실 ₩5,000원

## 신아밀봉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85.  
(054)734-3973 / 휴대폰 016-513-3973